

다산포럼

식민지 근대화론은 타당한가? (3)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학사

식량 사정이 궁핍한 경우 계절에 따른 사망률의 증감이 나타난다. 즉 식량이 부족해지는 충궁기에 사망률이 증가하고, 복 추수가 끝난 뒤에 사망률이 다시 감소한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에게서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고, 반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서는 그런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의 월별 사망률은 대체로 인구 10만 명당 150~160명이었다. 그런데 3월에는 250명 내외, 4월에는 210명 기량으로 크게 증가한다.

요컨대 조선인은 충궁기에 식량 부족으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전근대적인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났다.

영양상태 개선을 비롯한 생활수준의 향

상, 상하수도 보급과 주택 개량 등 위생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달과 의료혜택의 확대를 건강수준 개선의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게서 이를 요인은 어떠했을까?

곡물과 서류(갑자와 고구마), 즉 주식을 통한 1일 칼로리 섭취량은 일제강점기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한다. 1910년대의 평균 1920cal에서 1920년대는 1850cal, 1930년대는 1780cal로 떨어진다. 1940년대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은데, 개선되었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칼로리 섭취의 주요 원천은 곡물과 서류이지만 그 밖의 식품을 통한 칼로리 섭취도 있다. 하지만 곡물과 서류 이외의 식품을 통한 칼로리 섭취량은 구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신 연간 식료품비(1935년 가격)의 변화를 조사해보면 주류, 연초비만 뿐만이 증가했을 뿐 유통, 어패류, 기타 가공식의 식료품비는 미미한 증가를 보였을 뿐이다.

요컨대 일제강점기를 통해 조선인들의 영양상태가 개선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사망률 감소와 건강수준 향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영양상태 개선은 식민지 조선의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를 통해 위생적인 상수도 보급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상수 공급은 대체로 도시 거주 일본인 위주로 이루어졌다.

졌다. 1939년 400만여 조선인 세대 중 상수 공급을 받는 비율은 7%도 되지 못했다. 상수 공급이 일본인 거주 지역 중심으로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조선인의 3% 남짓만이 위생적인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절대 다수의 조선인들은 위생적인 상수와는 무관했다.

일제는 의학교들을 설립하여 조선인 의사들을 배출했고, 관립/도립의원을 증설하여 의료혜택을 확대했다고 선전했다. 그러한 선전처럼 조선인의 의료 수혜가 늘어났을까?

근대 의학을 교육받은 조선인 의사 수는 강점 전 100명 미만에서 1943년 2600여 명으로 30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의사 1인당 조선인 인구는 1943년에도 9800여 명이나 되어, 의사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대다수의 건강을 돌본 전통의료인, 즉 의생(醫生)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따라서 시기와 경과하면서 대다수 조선인들은 의료의 혜택을 더 받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의사 수의 측면에서 본국의 일본인들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었다. 반면 조선인들은 나이 갈수록 의료인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의사 및 의생 1인당 조선인 인구는 강점 초 2500명 수준에서 강점 말기 3600명가량으로

으로 악화되었다.

이렇게 조선인들의 의료 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있는데도 일제는 조선인 의료인을 늘리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이미 과포화 상태의 일본인 의사의 더 양산하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 결과, 조선에서 의사자격을 얻은 일본인 의사들이 일본 본토, 만주,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마저 일어났다.

조선총독부가 벌인 중요한 의료사업은 관립 및 도립의원의 증설과 지원 확대였다. 그러한 조치 덕분에 이들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용자는 일본인이 압도적이었다. 조선인 이용자 수는 매우 미미했거나 시기가 지나도 늘어나지 않았다. 1930년대 말 인구 1만 명당 관립 및 도립의원 이용자 수는 일본인이 5000여 명인데 반해 조선인은 100명 가량이었다.

일제는 '조선인을 위해' '조선에 근대식 의료를 보급하기 위해' 나아가 '조선의 문명 개화를 위해' 의료기관을 많이 세웠다고 선전했지만, 사실은 일본인들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대부분의 조선인은 납세를 통해 조선 내 관립, 도립 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을 위한 비용만 부담했지 혜택은 거의 누리지 못했다.

NGO 칼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은혜'



송우진

삼동청소년회 광주전남지구 교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하며 많은 아이들을 만난다. 이 친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나 물어보면 가족과의 갈등과 학업 문제를 꼽는다. 내가 만난 아이들만 그렇길? 신문이나 뉴스를 찾아보면 청소년 사망의 원인 1위는 자살이라 하고, 그 자살 원인의 1, 2위가 가족관계와 학업문제라고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고, 방과 후에는 아간 자율학습까지 한다. 친구를 만나 마음껏 놀 수도 없고 자기만을 위한 취미활동은 더욱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게다가 주말에는 광일에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가지 못했던 학원에도 가야한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온 생활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오르지 않

는 성적 때문에 늘 좌절하고, 괴롭다. 게다가 그 짜증과 스트레스를 집에 가져 풀어대니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

그럼 부모는 어떠한가.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줄어 살립은 나날이 꽉꽉해지고 있다. 계다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은 요즘은 사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라는 말까지도 한다. 이러다 보니 사교육비를 충당하자면 맞벌이는 필수이다. 그래서 부모의 삶도 매우 고통하다. 그러나 자녀는 이런 부모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움은 모르고 짜증만 내고 용돈 탐험만 하고 심지어는 다른 부모와 비교까지 하니 부모는 또 부모대로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학생은 학생대로 갑갑한 삶이요, 풀리지 않는 인생이요, 막막한 미래다.

부모는 부모대로 곽한 인생이요, 알아줄 사람 없는 서러움이요, 답답한 미래다.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한다. 어떻게 해야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이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사는 사회를 큰 틀에서 변화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사회의 큰 변화를 이루는 방법도 있다.

이건 우리 앞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다. 비가 와서 개천을 건너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엎어서 건네주었다면 몹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의 은덕을 깊이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개천에 다리가 있다면, 그 다리를 건너면서 다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우리는 오히려 작은 은혜는 잘 기억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정말 큰 은혜와 고마움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부모와 자신의 관계가 힘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 않을까?

자식의 존재만으로도, 또 부모의 존재만으로 엄청난 은혜인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읊을 때 발견하는 연습과 훈련을 지금 바로 시작하면 좋겠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일상에서의 고마움을 찾아낸다면 가정은 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회도 작은 변화의 빛이 반짝이게 될 것이다.

잃어본 사람은 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식이라는 존재, 건강한 몸,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새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겪어보니 우리가 전에 마시던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당연히 생각하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지금 바로 느껴보자. 감사를 굳이 교당이나 교회, 절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로 내 눈에 띄이는 것들을 둘러보라. 그동안 사소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말이다.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셨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크나큰 은혜임을 깨달을 때, 오해와 갈등과 미움의 벽이 녹아내린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당연한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연습과 훈련을 지금 바로 시작하면 좋겠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일상에서의 고마움을 찾아낸다면 가정은 더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사회도 작은 변화의 빛이 반짝이게 될 것이다.

순천시의 불통행정이 한 민원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다. 법적 잔재를 들이기 전에 먼저 설득하고 이해시켰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민원인의 애원에 귀를 막은 공무원들의 꽉

막힌 자세에 분노가 치민다.

지난 20일 오후 12시 10분께 순천시 청 청사에서 서모(41·순천시 생목동)

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뿐 뒤 분

신했다. 서씨는 서울 S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한 지 21시간 만인 지난 21일 오전 7시 40분께 사망했다.

광양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서씨는 지난 2008년 4월 순천시 야후동 자신의 우량농지에서 주유소를 하려고 허가 신

청서를 냉고나 불허 당했다. 이후 서씨는

가스총전소·소매점·농가주택 등의 신축

허가를 잇따라 요구했다. 하지만, 농업생

산기반에 정비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될 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

의 제한)에 따라 시는 이를 불허했다.

서씨는 지난 2008년 ~올해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서씨는 불허 당하거나 패소를 때마다 주

변에 내준 다른 건축허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민원인의 문제를 외면한 체

자대만을 고집했다.

조총훈 시장은 민원인 사망 이후 뒤늦

게 불통·탁상행정이라고 질타하고, 담

당국장을 대기발령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평소 민원현장을

조금만 세심히 살피더라면 이런 비극적

인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일각에서 민

원인의 죽음을 행정에 의한 타살이라

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순천시는 고인의 유족들에게 깊이 사

과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시시비비를 끌어올리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루빨리 열린 행

정체계를 갖추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社說

광주은행 인수 물거품, 광주상의는 뭘 했나

지역자본의 광주은행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결성한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이 지난 16

일 재무 파트너로서 MOU를 체결한 큐

캐피탈파트너스가 광주은행 공동인수

주진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인수자금 확보에 실패

한 때문이다.

광주상의 측은 23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입장제안서 마감시간이 이날 오후 5

시로 확정됐으나 자금원이 없는 상황에

서 광주전남상공인연합 단독으로 응찰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우리사주조합을 이끌고 있는

광주은행 노조 역시 재무 파트너를 구하

지 못해 이날 입찰 포기 입장장을 밝혔다.

특히 광주상의와 광주은행 노조가 진

정성 있는 협력을 하지 않고 주도권

싸움을 해왔던 것도 비난을 피할 길이 없

다.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상 지역자본

인수에 어려움이 큰 데 반해 광주상의

인수는 늘어나지 않는 능장 대처로 일관하다

방향을 바꾸다가 그 구조물에 차를 긁히는

결했으나 4일만에 파탄이 난 것이다.

재무 파트너로서 인수 의지나 역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큐캐피

탈파트너스에 끌려다니다 주가만 올려

준 끝이 됐다. 같은 입장인 경남은행의

경우 인수주진위가 지난 7월 파트너를

선정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일찍부